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 구 분  | 내 용  |
|------|--|
| 제목   | 귀신고래   |
| 수상내역 |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트리트먼트 부문 최우수상   |
| 작가   | 최은영  |
| 분야   | 트리트먼트  |
| 기획의도 | <p>울산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중,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아이템이 바로 고래 이야기다.</p> <p>여기에 덧붙여 좀 더 특별한 사연이 담긴 고래를 재조명 해보고자 했다.</p> <p>몸길이 16m, 몸무게 45톤의 거대한 몸집.</p> <p>사람이 다가가면 귀신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귀신고래.</p> <p>무분별한 포획으로 동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보고 된 귀신고래가 만약 우리 앞에 다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면!</p> <p>어떤 길한 징조가 일어날까?</p> |

# 트리트먼트 최우수상

## 귀신고래(최은영)

이른 새벽, 러시아 사할린 필튼 만에 위치한 국제 고래연구 공동기지. 세계 해양학자들의 고래 생태계 연구 목적을 위해 세워진 곳이다. 숙소 안은 깊은 단잠에 빠져 있는 외국인 해양학자들로 가득하다. 그들 사이에 유일한 동양인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바로 한국 해양학자 최준호다. 준호는 미로 같은 꿈속을 헤매고 있다.

질은 보랏빛의 심해. 그 속에 준호가 갇혀있다. 준호의 시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물체가 다가온다. 춤을 추듯 천천히 바다 속을 유영하고 있는 물체는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다. 여인의 옷자락이 준호의 눈앞에 서성인다. 준호가 옷자락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팔을 뻗어본다. 그러자 힘겹게 호흡하던 준호의 입에서 물거품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괴로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며 꿈에서 깨어나는 준호. 눈을 뜨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의 아득한 바다를 바라본다.

동이 트기 직전, 파도가 잔잔한 새벽 시간이 고래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숙소를 빠져 나온 준호는 고래 관측 장비들을 소형 보트에 옮겨 싣고 바다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보트를 멈추고,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때 수면의 일렁임이 커지더니 한 무리의 돌고래 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 둘 물분수를 뿜어대며 보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돌고래 떼.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날이 밝자 숙소로 돌아온 준호. 그때 외국인 해양학자가 급히 준호를 불렀다. 방금 전 준호를 찾는 전화가 왔으며, 쪽지를 한 장을 건넸다. 종이에 '한국, 김민섭'이란 영어단어가 전부였다. 준호는 한국에 있는 김민섭으로부터, 귀신고래가 동해 바다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1970년대 이후 동해바다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귀신고래가 40여년 만에 나타났나다는 자초지정을 듣자, 준호 뿐 아니라 러시아 연구소의 동료 학자들까지 흥분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00여 마리에 못 미치는 희귀종이 한국 바다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해양학자들에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준호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울산에 도착한 준호. 러시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말끔해진 모습이다. 준호는 택시를 타고 고래연구소로 향한다. 그가 러시아로 가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다. 3년 만의 방문이라 그런지 준호의 표정이 상기된 듯하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북 한 마리가 납죽 엎드리고 있는 모습의 반구대 암각화. 얼마 전 학계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면서 이 일대가 재조명 되고 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암각화를 구경하기에 바빴다. 그 틈에는 여덟 살 쯤으로 보이는 어린 준호와 엄마도 있다. 울산 토박이인 어린 준호의 눈에는 절벽에 그려진 수수께끼 같은 그림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엄마도 준호 곁에서 함께 바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있다.

“준호야, 고래 가족 그림 보이지. 그거 아냐? 고래는 지 새끼가 다치거나 힘없어 숨 못 쉬면, 숨 쉬라고 어른 고래가 밑에서 들려 올려 준다...”

“귀신고래가 우리 아빠보다 더 낫네... 맨날 술만 먹고 소리 지르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준호야, 저기 봐라. 저기 귀신 고래 그림도 있다.”

“진짜요? 어디요, 어디!”

그러자 어린 준호의 눈에 마법 같은 일이 펼쳐졌다. 절벽 바위에 그려진 고래 그림이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절벽을 뚫고 나와, 물속으로 풍덩 헤엄치는 것이 아닌가! 준호는 엄마에게 말해보지만, 그 사이 귀신고래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나 귀신고래 봤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던 준호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띄워져 있다.

그러는 사이 울산 고래연구소에 도착했다. 김민섭 소장과 강해인이 들뜬 표정으로 준호를 기다리고 있다. 준호가 택시에서 내리자, 서글서글한 인상의 김 소장이 달려와 반갑게 껴안았다. 두 사람의 상봉이 끝나자, 해인이 씩씩하게 악수를 청했다. 한때 연구소 에이스가 준호였다면, 지금의 에이스는 해인이라는 김 소장의 말에, 준호가 그제야 해인을 살피본다. 말괄량이 같은 얼굴에 해맑은 웃음. 웬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여자였다.

연구소 사무실 벽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귀신고래 발견자에게 오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스터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포스터를 보고 있던 준호에게 김 소장이 몇 장의 사진을 건넸다. 귀신고래의 모습을 찍었다는 한 목격자의 사진이다. 하지만 워낙 멀리서 잡힌 모습이라 귀신고래라 단정하기 어려웠다. 이때 해인이 고래 음파 녹음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 준호에게 들려준다. 희미한 소리가 열지만 일정하게 들려왔다. 음파 분석 화면에 저주파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러자 준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음파의 움직임으로 봐선 귀신고래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멸종 위기에 처한 귀신고래를 다시 동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세웠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불순한 목적으로 귀신고래를 찾아나서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다. 최근에 귀신고래의 희소성을 알고 그걸 역이용해 불법포획하려는 민간어업선이 출몰한다는 신고가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고래연구소에서 전문팀을 꾸려 불법포경선들 보다 먼저 귀신고래 단서를 찾아야 했다. 김 소장은 준호를 주축으로 귀신고래 탐사 팀을 꾸리기로 한다. .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사무실을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김 소장이 누군가와 통화한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준호가 울산에 왔음을 알렸다. 이제부터 술 좀 끊으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해인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지켜본다.

울산 장생포 일대. 거대한 몸집의 공장단지 너머로 그에 비하면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포구가 자리해 있다. 준호가 생각에 잠긴 채, 포구를 걷고 있다. 이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장구와 징소리에 준호의 걸음이 멈칫한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걸어간다. 소리와 가까워질수록 잊고 싶지만, 잊혀 지지도 잊을 수도 없는, 오래 전 기억이 또다시 떠오른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 낡은 집. 여덟 살인 어린 준호의 집이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린 준호가 엄마와 함께 맨발인 채로 마당으로 뛰쳐나온다. 뒤로는 방안에 있는 물건이 죄다 날아온다. 방에서 나온 덩치 큰 채구의 최성부가 욕설을 퍼부으며 준호 모자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내의 목덜미를 움켜 쥔 채, 당장 술을 가져오라며 고함쳤다. 준호의 움켜쥔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성부가 핏발 선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준호의 얼굴 위로 큼직한 손을 치켜 올렸다. 준호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아버지를 노려봤다. 당황한 성부는 씩씩거리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아버지를 이해하라며, 포경이 금지되고부터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 거라며, 애써 성부를 감쌌다.

며칠 뒤 마을에서 용신굿이 벌어졌다. 연안에 띄워진 작은 배 위에 무당과 그 패거리들이 흥을 타기 시작했다. 무당 패 옆으로 몇몇 여인들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속에 준호 엄마도 있다. 포경이 금지 된 후, 일할 곳을 잃은 어부 몇이서 몰래 고래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들이 모여 용왕에게 빌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준호의 눈에도 굿판이 보였다. 준호의 눈에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마뜩치 않았다. 그때. 배 위에서 일어나는 굿판이 갑자기 요란스러워졌다. 그러더니 무당이 준호 엄마에게로 다가가 격정적으로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준호의 엄마가 뒤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뱃머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구명 밧줄을 허겁지겁 바다에 던졌다. 비현실적인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외쳐보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저 요란한 굿 소리만 들릴 뿐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정신을 차린 준호, 징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다. 한 어부가 새로 산 소형선의 무사안일을 위해 조출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매달려 배에 태워 달라 졸랐다. 아빠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라 배 위로 올라갔다. “아빠 최고”를 외치는 아이들.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걸음을 돌렸다.

이때 취객 한 명이 난입해 소동을 피운다. 한 중년 남자가 징이며 장구며 음식들이며 보이는 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다 쓸데없는 짓이야, 고

함쳤다. 준호는 목소리 주인공이 아버지 성부란 걸 알아차렸다. 뒤돌아선 준호, 아버지 성부와 시선이 마주쳤다. 성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못해 싸늘하기만 하다. 준호는 아버지를 못 본 체 하고는 돌아서버렸다. 그런 준호를 바라보는 성부의 거대한 몸이 왜소하게 움츠러들었다.

해인이 어린이 집 앞으로 준호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준호에게 돌고래 인형 탈을 씌우더니, 무작정 어린이집 안으로 끌고 갔다. 알고 보니 울산 고래연구소에서 매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인, 고래 홍보 교육이 있는 날이었던 거다. 해인은 고래 인형 탈을 쓴 채로 어정쩡하게 서있는 준호를 아이들 앞에 세웠다. 준호가 허둥거리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해인은 여세를 몰아, 고래 인형 탈을 쓴 준호의 몸을 이용해 고래 이야기를 들려준다. 준호의 고래 인형 탈에 뚫려진 구멍 틈으로 해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기운 넘치는 해인의 모습에 준호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지, 해인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고래 홍보 교육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준호와 해인. 고래 인형 탈을 벗자 준호의 얼굴이 땀범벅이다. 해인은 준호에게 해양학자가 된 이유를 물어봤다. 뜬금없는 해인의 질문에 준호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해인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야기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다. 머뭇거리던 준호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바다는 그림고 또 두려운 곳이다, 하지만 도망치려 할수록 벗어날 수 없었다, 바다에서 지켜야 할 게 있는 것 같다...

귀신고래 탐사 팀이 꾸려진 첫째 날. '귀신고래1호'라 적힌 70톤 급 흰색 탐사선이 포구에 정박해 있다. 탐사 팀의 리더로서 준호가 먼저 탐사선에 오르고, 그 뒤를 이어 탐사 팀원에 소속된 해인, 박철민, 윤정태, 김태환이 탐사선에 올랐다. 포구에서 지켜보던 김소장과 연구소 직원 몇 명이 파이팅을 보냈다. 팀원들이 다 오르자, 조종실에 들어선 박선장이 흥분된 표정으로 탐사선을 출발시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선 옆으로 푸른 참고래 떼들이 나타났다. 준호는 특수망원경으로 푸른 참고래 떼를 관찰했다. 그러다가 망원경 시야 안으로 고래들과 인사 나누고 있는 해인이 들어왔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해인의 모습에 준호는 피식 웃음이 났다. 몇 시간 동안 탐사 활동이 계속 이어졌다. 해인이 무인 비행선을 하늘에 띄웠다. 준호는 무인 비행선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했다. 수면 위에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스킨스쿠버 전문가인 태환과 함께 직접 바다 속을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눈앞에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유유히 헤엄치는 반짝이는 물고기 떼, 만개한 꽃처럼 축수를 펼친 말미잘, 물결과 함께 춤을 추는 해조류... 그 속에서 준호는 귀신고래의 출몰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지 살폈다. 하지만 잠수 제한 시간이 다되도록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결국 준호와 태환은 탐사선에 다시 올랐다.

날이 저물자 포구로 향하는 탐사선. 준호는 선체 난간에 몸을 기대 채로 밤바다의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 왔는지, 해인이 준호 옆에 섰다. 해인은 준호가 일전에 말한

바다에서 지켜야 할 게 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대답 대신 그저 바다만 응시할 뿐이다. 해인은 그런 준호를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고래 연구소 사무실로 해경이 방문했다. 귀신고래 출몰 소식 이후 불법 포경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귀신고래로 크게 한 건 하기 위해, 한때 유명세 날렸던 고래잡이들을 불러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 것이다. 순간, 준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해경은 탐사 활동 중 수상한 선박이 보이면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구소를 나갔다. 김 소장은 좀 더 빨리 성과를 얻기 위해 새로운 팀원 한 명을 추가하기로 한다. 준호도 김 소장의 지시에 동의했다.

준호가 팀원들과 함께 탐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때 소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팀원들 쪽으로 다가왔다. 탐사 팀에 새롭게 합류한 멤버다. 뒤늦게 준호가 새 멤버를 확인했다. 그런데... 소장이 말했던 새 멤버가 바로 준호의 아버지 성부였다. 성부가 준호에게로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준호는 성부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이 부자 사이라는 걸 알 리 없는 팀원들은 준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김 소장은 준호의 따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고는 연신 헛기침이다.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성부가 한 때 유명한 고래잡이였으며, 그 경험이 탐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못 박았다. 모두 김 소장의 말에 수긍하는 눈치인데, 준호만이 단호한 표정으로 반대했다. 성부를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는 거다. 준호의 말에 성부의 눈빛이 강렬해졌다. 그리곤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준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귀신고래 잡는 데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많다. 여기서 안 받아주면 다른 곳에서 딴 맘으로 잡지 뭐. 왜, 나랑 같이 일하면 나보다 실력 못할 게 들어날 것 같아 그러냐. 선택해라. 나랑 같이 잡든지. 따로 잡아서 내가 먼저 팔아넘기는 거 지켜보든지.”

준호가 경멸의 눈빛으로 성부를 바라보더니, 자리를 떠나버렸다. 팀원 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빴다. 김 소장이 서둘러 준호를 쫓아나갔다.

연구소를 빠져 나가려는 준호를 김 소장이 멈춰 세웠다. 과거 고래잡이 중에 활동할 힘이 남아 있는 최고의 고래잡이인데다 귀신고래까지 잡은 경험자인 성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까봐, 러시아에서 마음 놓고 고래 연구에만 빠질 수 있도록 국제 고래연구소에 추천서를 써준 것도 김 소장 자신이었으며, 그 때를 생각해봐도 성부의 합류를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끝까지 거절하는 건 아들이 아버지 두려워 피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일침까지 가했다.

“두려워서 피해요? 좋습니다. 그 사람 실력 얼마나 대단한지, 같이 탐사 팀 하면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게요. 나중엔 꼭 팔려서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할 걸요. 귀신고래가 자기 죽인 사람 손에 나타날지, 지키려는 사람 손에 나타날지 어디 한 번 보자구요!”

준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부는 팀원들과 인사 나누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성부의 걸쭉한 입담에 모두들 호감을 갖는 눈치다. 성부가 탐사선 준비를 거들며 신명나는 노랫가락을 뽑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장단을 맞춘다. 해인이 가장 신나 있다. 흥이 고조에 달할 때쯤, 준호가 탐사선에 도착했다. 준호는 성부의 행동에 기가 찼다. 성부의 장단에 가장



크게 웃고 떠드는 해인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영문을 모르는 해인은 그런 준호가 이상하기만 하다.

성부가 합류한 탐사선이 바다 한가운데를 달린다. 성부와 박 선장은 과거 고래 어장이 한창 활발했던 시기를 읊으며, 각자의 무용담을 펼쳐놓았다. 단연 성부의 무용담이 팀원들에게 더 인기다. 준호의 눈엔 성부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뻔뻔하게 여겨졌다. 성부는 바다속 물 흘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고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성부의 말에 팀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성부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자처했다. 성부는 노를 바다 속에 넣고는, 노의 손잡이 부분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댔다. 그렇게 몇 분 동안을 꼼짝 않고 눈 감은 채로 노 끝에 집중했다. 성부의 진지한 표정에 팀원들도 노 끝으로 시선을 쏟았다. 그때 성부가 노에서 얼굴을 떼고는 수면 한쪽을 가리켰다. 그리곤 덩치 큰 물고기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는 거다. 운이 좋으면 귀신고래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선장이 밀저야 본 전 아니겠냐며, 탐사선을 성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 탐사선.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자료 분석에 빠져 있다. 이때 해인이 특수 망원경으로 수면 위를 관찰하더니, 물거품 덩어리들을 발견했다. 그리곤 뜰채로 수면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품 덩어리를 건져냈다. 건져 올린 거품 덩어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해인이 고래에게서 나온 배설물 거품인 것 같이라며 준호에게 보여준다. 무심하게 보던 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그리고는 배설물 속에 있는 작은 생물체를 손가락으로 집어 들었다. 앰피포더... 귀신고래가 좋아하는 먹이었다.

탐사선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졌다. 준호의 지시를 받은 태환도 수중 카메라를 들고 바다 속으로 다이빙한다. 바다 속을 헤엄치던 태환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작은 물고기 떼들이 물속에 떠다니던 고래 배설물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이다.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하는 준호는 ‘설마...’하는 표정으로 성부를 바라봤다. 성부는 태연한 표정으로 바다 위를 응시할 뿐이다.

그날 저녁, 장생포 일대의 ‘울산댁’이란 낡은 식당 안. 탐사 팀이 첫 회식 자리다. 귀신고래를 찾진 못했지만 관련 증거물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보인다고, 모두들 들뜬 목소리다. 안주를 내오던 식당 주인 할머니도 귀신고래가 나타나면 길한 징조가 있을 거라며 관심을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말없이 소주잔을 들이키는 준호. 성부가 비워진 준호의 술잔을 채우려 하자 준호가 차갑게 뿌리치고는 비아냥거렸다. 길한 징조는커녕, 바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갔으니 누구 한 명 또 죽어나는 꼴을 보고 싶냐 쏘아붙였다. 성부의 표정이 서서히 경직되어 갔다. 바다 속에 있는 거는 뭐든지 잘 찾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못 찾느냐며. 그것도 노를 데고 찾아보지 그랬냐고, 성부의 치부를 건드렸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성부가 준호의 뺨을 내리쳤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호는 술상을 덮어버리고는 식당을 빠져 나갔다.

늦은 오전. 연구소에 마련된 숙직실에서 잠들어 있는 준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꿈

을 꾸고 있는 중이다.

하얗다 못해 통통 부은 여인의 몸이 심해 속을 천천히 유연하고 있다. 준호는 손을 뻗어 팔을 잡으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꿈꾸거리다 갑자기 꿈에서 깬다.

눈을 뜨자, 해인과 마주친다. 뭔가 괴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깨웠다고 한다. 준호는 깨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기진맥진이다. 해인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탐사 팀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부가 보이지 않는다.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준호다. 김 소장이 성부에게 전화해 보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걱정스러운 김 소장이 해인을 따로 불러 성부의 집주소가 적힌 쪽지를 몰래 건네준다.

성부의 집에 도착한 해인. 조심스럽게 성부를 부른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

그 시각, 인적이 드문 해안가의 한 선착장. 낡은 어선 몇 대가 초라하게 놓여있다. 성부는 한 소형 선박의 갑판 위에 홀로 앉아 있다. 선체 외벽 페인트칠이 여기 저기 벗겨지고 녹이 쓸어 얼핏 파선 폐선 같아 보인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성부는 선체 외벽을 여기 저기 살폈다. 그리곤 어선의 이름이 쓰인 자리에 시선을 멈춘다.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져 무슨 글씨인지는 알 수 없다. 그곳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성부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해인이 성부의 집을 막 나서려는데, 그때 ‘깹’하는 대문소리와 함께 성부가 들어온다. 생각지도 않던 해인의 방문에 성부도 놀랐다. 쭈뼛거리며 일어나던 해인, 금방 특유의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성부는 해인에게 더 이상 탐사 팀과 함께 할 일이 없다며 방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방안까지 따라 들어온 해인이 성부의 기분을 맞추며 여기 저기 흠어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러다가 바닥 한쪽에 놓여있던 비닐봉지 꾸러미를 툭 건드렸다. 봉지 속에서 엄청난 양의 약봉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슨 약인지 묻자 성부가 대답을 피했다. 머쓱해진 해인의 눈에 서랍 위에 놓인 액자가 들어왔다. 성부와 꼬마 아이가 작은 소형선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다. 해인은 꼬마 아이의 얼굴이 어디선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 속 소형선에는 ‘JUN-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해인이 가만히 보다가 혼자말로 중얼 거려 본다. “준...호?!”

연구소로 돌아온 해인은 성부의 집에서 본 사진에 대해 김 소장에게 물었다. 그제야 해인은 성부와 준호가 부자지간임을 알게 됐다. 해인이 성부의 약봉지에 대해서도 말을 꺼내자, 김 소장이 사실을 터놓았다.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 처가에 아들도 빼앗기고, 그 후 술과 담배로 전전했다며. 폐암 진단까지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 사실이 준호에게 알려지는 걸 성부가 꺼려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준호에게는 비밀이라며.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두 사람의 꼴이 더 나빠지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고래 연구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브라이드 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로 해변으로 떠밀려온 것이다. 현장에는 이미 해경과 특별조사관이 도착해 조사 중에 있었다. 뒤늦게 연락



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준호와 해인. 브라이드 고래를 살피는 준호의 표정이 어둡다. 꼬리지느러미 부분에는 낡은 그물들이 엉켜있다. 조산관은 인근 양식어장 그물에 걸린 브라이드 고래가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좌초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준호는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다. 해인과 함께 다시 한 번 이곳저곳을 확인해본다. 그때 고래 몸통의 상처를 유심히 바라보던 준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굵힌 상처 주변으로 넓게 퍼진 멍자국 때문이다. 조산관은 아마도 그물로 인해 혈관들이 터져 생긴 멍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준호의 견해는 달랐다. 멍든 형태로 보아 어떠한 물체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바다 속에서 그러한 표면에 부딪힐 만한 것은 선박 밖에는 없다는 준호. 해경들에게 혹 신고가 들어온 선박이 없는지 묻지만, 해경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다. 그물을 살펴보던 해인이 급히 준호를 불렀다. 고래에 엉켜있는 그물이 이 부근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준호는 의혹이 담긴 표정으로 죽은 고래를 바라봤다.

며칠 뒤. ‘울산택’ 식당 구석진 자리에 성부가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가게 창밖 너머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오늘따라 유달리 고요하다 혼잣말을 한다. 같은 시각, 해경의 정찰선과 귀신고래 탐사 팀의 탐사선이 밤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다. 지난 번 브라이드 고래 좌초 사건 이후로 몇 차례 같은 사건이 또 발생되자, 해경과 탐사팀이 공동 수사에 나선 것이다. 짙은 해무 때문에 바다 위에 보이는 거라곤 등대의 희미한 불빛뿐이다. 준호는 바다에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 해인이 준호에게로 다가와 오늘처럼 조용한 밤바다는 처음인 것 같다 말한다. 마치 귀신이라도 나타날 것 같다며.

‘울산택’ 식당. 성부의 시선도 어느새 밤바다로 향해 있다. 그러다 다시 소주잔을 들이키려 하는데, 그때! 희미하게 들리는 정체모를 소리가 성부의 귀에 꽂혔다. 주인 할머니에게 방금 난 소리 들었냐고 묻는 성부.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또 한 번 성부의 귀에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분명...” 성부는 흥분된 표정으로 혼잣말 하며, 식당을 뛰쳐나갔다. 뒤에 홀린 사람 같다.

해경은 몇 시간 쯤 정찰 중이나 수상한 선박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그만 철수하자는 무전을 탐사 팀으로 보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수궁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식당에서 뛰쳐나온 성부가 자신의 소형선이 있는 선착장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선착장에 도착한 성부. 낡은 배에 재빨리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폐선 같기만 했던 배에서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자 속력을 최대치로 올려 깊은 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성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조금만 기다리라 한다.

탐사선이 선착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때 해경 정찰선에서 급히 무전이 왔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선박 한 대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것. 정찰선과 탐사선이 미확인 선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앞만 보며 달리는 성부는 해경과 탐사선이 자신을 쫓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저 칠혹 같은 바다 위를 애타게 달릴 뿐이다. 해경의 정찰선 시야에 드디어 성부의 배가 보이기 시작했다. 해경이 무전으로 성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정지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성부의 귀에는 희미하게 들리는 정체모를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성부의 어선이 속력을 줄이지 않자, 탐사선이 바짝 뒤쫓았다. 점점 성부를

추월하기 시작하는 탐사선, 어느새 앞을 가로 막았다. 뒤쫓던 해경 정찰선의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성부. 급하게 선박의 속도를 줄이고 엔진을 껐다. 해경의 정찰선도 성부의 배 옆으로 다가와 진압했다. 해경이 성부를 향해 갑판 위 불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명령했다. 천천히 걸음을 떼며 불빛으로 나오는 성부. 탐사선과 정찰선에서는 정체 미상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게 드리운 해무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자, 해경이 손전등을 비췄다. 그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얼굴... 성부다. 준호를 비롯한 탐사 팀원들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성부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취조를 받는다. 성부 뒤로 준호와 해인, 그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뛰쳐나온 김 소장이 자리해 있다. 경찰이 질문을 던지지만, 성부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지켜보던 김 소장이 나서서 성부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상황은 똑같다.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하는 준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부에게 다가간다. 대답을 못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가 아니냐며. 탐사 팀에 들어온 것도 고래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치 파악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아니었냐고. 고래 한 마리 들이받아 돈 주고 팔려고 작심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다그쳤다. 여전히 성부는 묵묵부답이다. 해인은 준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르기엔 이미 늦어버린 준호, 참았던 말을 끝까지 뱉어 낸다. 고래도 어머니도 다 당신이 죽인 거라고. 성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성부의 혐의가 풀리지 않자, 경찰서 유치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된다. 김 소장은 성부의 건강이 걱정이 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해인은 성부에게 못되게 구는 준호가 못마땅하다. 김 소장은 경찰을 몰래 밖으로 불러내서 성부의 건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책임지고 어디 못 가게 할 테니 제발 유치장에서 내보내 달라 사정했다. 그때. 경찰서를 나오던 준호가 김 소장과 경찰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엿듣는다. 폐암 말기라고? 순간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멍해진다.

길거리를 방황하며 걷고 있는 준호. 마주 오던 사람들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쳐 휘청거린다. 뒤따라오던 해인이 준호를 붙잡았다. 해인은 준호의 안색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부가 폐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누구보다 준호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말했다. 준호는 그토록 미워했지만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게 된 아버지 때문에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해인이 말없이 준호를 안았다. 준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한 무리의 형사들이 경찰서를 찾았다. 성부를 취조한 경찰과 뭔가 중요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경찰의 표정이 점점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소에 근무 중이던 준호는 경찰서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제 밤 불법 포획을 벌이던 선박주와 업자들이 잡혔다는 거다. 바다 한 가운데 선박을 멈추고 선내에서 고래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최근 좌초된 고래 사체에서 발견된 그물과 동일한 그물도 확보했다고 한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협이가 풀리자, 성부는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경찰서 입구에는 해인이 서 있었다. 성부가 주변을 살폈다. 혼자 온 해인이 성부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준호가 다른 급한 업무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두부 한 모를 성부 앞에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성부가 말없이 두부를 건네받았다.

“그런데요... 바다에 나간 이유...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귀신고래 울음소리를 들었어... 죽은 준호 엄마 목소리기도 했지... 내 손으로 바다에서 건져내주고 싶었어...”

장생포 앞바다. 성부가 해안가 모래사장에 앉아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성부 뒤에 말없이 가만히 선다. 준호다.

“가끔 바다 속에 빠지는 꿈을 꾸요. 그 곳에서 어머니도 만나요. 그때마다 아버지 원망했어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다면... 그럼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아버지만큼이나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도...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바다에 있는 건 뭐든 지키려고 살아왔어요..”

“... 니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지쳤던 거야. 그러니 그런 일을... 옛날부터 귀신고래가 나타나면 길한 징조가 있다고 했다. 그 후로 바다만 쳐다봤다. 귀신고래가 나타날까 해서. 만나게 되면 꼭 부탁하려 했지. 니 엄마 찾아달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바다에 묻으려는 듯.

이른 새벽, 다시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 귀신고래 탐사선. 성부와 해인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이 준호의 시야로 들어왔다. 준호의 입가에 열은 미소가 번졌다. 해인이 고개를 돌리자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해인이 성부를 준호 곁으로 데려왔다. 준호가 어색한 목소리로 “내일은 꼭 병원에 가세요, 아버지...” 한다. 해인과 팀원들은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뿌듯해 했다.

그때 박 선장이 준호를 급히 부른다. 파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며. 방금 들어온 일기예보로는 동해안에 돌발 폭우가 불어 닥칠 것 같다고 한다. 그제야 하늘 끝자락에 진을 치고 있는 검은 구름 떼가 보였다. 박 선장은 파도가 거세지면 탐사 활동도 어려우니 그만 철수하자고 말했다. 그때 성부가 조금만 더 나가면 귀신고래 울음소리를 들었던 곳에 도착한다며, 절실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나가보기로 한다.

얼마가지 않아 천둥소리까지 울렸다. 그러더니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졌다. 파도도 점점 더 거칠어졌다. 무리라고 판단한 박 선장이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하자, 그때 성부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저기 있다” 외친다. 모두 성부가 가리킨 곳을 바라봤다. 파도가 워낙 거칠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해인이 무인 탐사선을 띄워보지만 폭우 때문에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다.

그때 수면을 바라보던 준호의 시야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짙어진 물결 때문에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지만 분명 덩치 큰 고래의 몸체 일부분이었다. 준호는 박 선장에서 성

부가 가리킨 곳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바다의 상태는 이미 최악이라 박 선장이 망설였다. 이번엔 성부가 박 선장에게 소리쳤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박 선장, 결국 목적지로 이동한다. 파도의 울렁임 때문에 선체가 흔들렸다. 모두 선체 난간을 굳게 붙잡고 있다. 준호는 바다 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다. 그때 준호의 눈에 또 한 번 고래의 등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꼬리지느러미가 솟구쳤다. 분명 귀신고래다. 준호는 비틀거리는 몸을 힘겹게 가누며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귀신고래를 향해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쏘려고 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큰 물살이 들이닥쳐 선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난간에 서 있던 준호가 중심을 잃고는 바다 속에 빠지고 만다. 놀란 성부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다급해진 성부가 준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려 한다. 그러자 해인이 성부를 말린다. 성부는 괴로운 표정으로 준호의 이름을 부른다. 해인과 나머지 팀원들도 가슴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미세한 빛 속에 휘감긴 고요한 바다 속. 알 수 없는 무중력 공간에 휩쓸린 듯, 준호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천천히 눈을 뜨자, 꿈속에서 보았던 풍경이 몰려들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토록 선명할까. 그때 준호의 시선에 춤추듯 움직이며 다가오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바로 준호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토록 애타게 찾던... 엄마였다. 준호가 팔을 뻗어본다. 그러자 엄마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바다 속인데도, 준호에게는 엄마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다. 물기에 축축이 젖은 엄마의 눈도 준호에게만은 그대로 보였다. 두 사람은 흘러가는 조류에 몸을 맡긴 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엄마가 준호와 맞잡은 손을 풀려한다. 준호는 엄마를 놓치기 싫어 손에 힘을 준다.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지 않는다. 그 순간 누군가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 성부다. 힘겹게 헤엄치던 성부의 눈에 정신을 잃어가는 준호와... 그리고 죽은 아내가 보였다. 성부는 있는 힘을 다해 준호 곁으로 헤엄쳤다. 드디어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했다. 성부는 아내의 손을 말없이 붙잡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준호의 몸을 떠받치기 시작했다. 바다 밑으로 빨려가던 준호의 몸이 조금씩 위로 올라간다. 준호의 눈에도 성부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준호의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에, 어린 시절 엄마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준호야... 그거 아냐? 고래는 지 새끼가 다치거나 힘없어 숨 못 쉬면, 숨 쉬라고 어른 고래가 밑에서 들려 올려 준다...”

이때 거대한 생물체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토록 찾던 귀신고래다! 귀신고래는 커다란 눈을 한 번 깜빡이더니, 거대한 몸을 준호 밑으로 움직였다. 그리고는 준호를 떠받쳐 수면 위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성부와 엄마가 준호를 가운데로 두고, 곁에서 준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수면 위와 가까워지자 귀신고래는 준호의 밑에서, 성부와 엄마는 준호의 옆에서, 한 호흡으로 준호를 수면 위로 떠민다. 준호의 몸이 막 솟구치려 하는데... 이때 엄마가 준호와 잡은 손을 푼다. 나머지 한쪽 손을 잡고 있는 성부도 기력을 다하고는 준호의 손을 놓는다... 준호는 두 사람을 놓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보지만... 이미 두 사람 다 귀신고래와 함께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준호가 따라가려 몸부림치는데, 이

때 구조용 밧줄을 몸에 묶고 바다로 뛰어든 태환이 준호의 몸을 잡았다. 그리고는 준호를 물 밖으로 끌어내 구명 튜브에 몸을 걸쳤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있는 힘껏 밧줄을 당겨 준호를 건져 올렸다.

갑판 바닥에 드러누운 준호, 삼킨 물을 그대로 토해낸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미친 듯이 아버지를 외친다. 팀원들의 손길을 격렬하게 뿌리치고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 태세다. 해인이 있는 힘을 다해 준호를 꼭 붙잡았다. 뒤늦게 선박 위로 올라온 태환이 성부를 찾지 못했는지, 말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준호의 얼굴에도 해인의 얼굴에도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범벅이다. 이때 준호의 눈에만 거대한 귀신고래가 물속으로 잠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귀신고래 울음소리가 아련히 준호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진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해변 가의 작은 선착장. 황홀할 정도로 눈부신 바다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준호와 해인이 성부의 낡은 배를 수리하고 있다. 갑판 위에서 녹이 쓴 곳을 손보는 준호. 해인은 선체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해인이 검은색 페인트가 묻힌 붓을 준호에게 말없이 건넨다. 준호는 선체 외벽 위쪽에 '준-호'라고 또렷이 이름을 다시 새긴다. 해인이 기분 좋게 웃는다.

“귀신 고래 진짜 봤어요?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꼭... 다시 만날 겁니다. 꼭.”

준호와 해인의 다정한 모습 뒤로, 푸른 바다가 고요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성부와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바다 속 어딘가에서 귀신고래도 거대한 몸집을 거느리며 유영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 쿤 눈을 한 번 깜빡인다.

- 끝 -